

광산구,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 해소 기대...내달 10일까지 접수

최근까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산구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은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 확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구입본이 해당

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 유종별(난방용 등유, 중유, 부생연료,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이며, 이후 확정된 지원액은 농가·법인별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이동기 기자

북구청년센터 2023정책추진 '달' 올려

청년 삶의 질 향상 위한 6대 분야 정책 추진

북구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북구청년센터(청춘이랑)의 2023년 운영계획을 수립,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중흥동에 개소한 북구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년문화, 소통, 취·창업 교육 등 청년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이용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

올해 북구청년센터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지원 ▲성장지원 ▲소통지원 ▲상담지원 ▲취·창업지원 ▲정책참여 등 6대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설 대관을 통해 각종 모임, 스터디, 회의 등 청년들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학교 운영,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청년의 삶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힐링공작소, 청년주간, 유튜브 소통 채널 등을 운영하며 고민 해결을 위한 청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직무수행능력 특강, 청년 도전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청년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성조 기자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도시' 동구 만든다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수립 용역 추진

동구는 동구만의 지역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계획 수립, 주요 가로별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개선사업 실행계획 등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년6개월 동안 활발한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왔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경관이 필요함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전 예방 및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계획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관 주민참여단 및 경관학교 운영과 함께 전문가 강연·포럼 등을 개최해 전문가·행정·주민이 함께하는 동구만의 도시경관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꾸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문화 조성,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성과를 볼 수 있다"면서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전원 소재 확인

시교육청, 학교·행정복지센터·경찰과 협력해 입학까지 관리 철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5일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248명에 대한 소재 확인을 13일 마무리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동안 실시된 취학 전 예비소집에 취학 대상아동 1만2468명 중 248명을 제외한 1만2220명이 참석했다. 취학대상 명단에는 없었으나 외국

인, 타 시도 전입 등의 사유로 337명의 아동이 추가로 예비소집에 참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248명에 대해 즉시 유선전화,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 242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중 연락이 불거졌던 6명 해외취학대상 명단에는 없었으나 외국

1, 우즈베키스탄1), 국내 1명에 대해선 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 모든 아동의 소재 파악을 완료했다.

취학통지 시부터 이루어진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예

비소집에 앞서 예비 학부모를 위한 입학 절차 안내 전단을 제작해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했다. 이와 함께 97개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취학업무 설명자료(PTT)를 제작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힘썼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과장은 "학교·행정복지센터·경찰과 연계해 입학일 이후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끝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등장한 '전남농산어촌유학'

전남교육청, 코엑스에서 3일 간 홍보 부스 운영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소개되며 또 한 번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서울 삼성동 Coex 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장에서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매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 교육청 후원 아래 개최되며, 교육 기관 및 구급, 마이크로소프트사, 레고, EBS 등 총 250여 개 기관 및 단체, 기업이 참가하는 큰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인 만큼 3일 동안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으며, 개막식에는 이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대중 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 기간 국제교육 컨퍼런스,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전남교육청은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방문객 대부분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인 만큼 농산어촌유학 사업 참여 가능 수요자층에 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스 방문객들은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전남농산어촌유학은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유입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박종배 기자

정선화 영산강환경청장 취임 통합물관리·탄소 중립 강조



정선화 제32대 신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6일 취임했다.

정 청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환경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지난 1997년 제 4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 자원순환국장 등을 지냈다.

정 신임 청장은 기후위기에 발맞춘 물관리와 탄소 중립 지원, 영산강 생태 보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설맞이 청결 대책 연휴 전후 집중 청소

광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해 시가지 청결 활동, 종합상황실·청소기동반 운영, 연휴 기간 수거일 조정 등을 통해 연휴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설 연휴에는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 958명이 격일로 특별근무를 하며 시가지를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자치구가 보유한 살수 차량과 진공흡입차량 등 노면 청소 차량 16대도 집중 투입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46개 반 101명으로 상황실과 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결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불법투기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형안 기자

서구 '마을 자치 강화' 생활정부 선포식

"선한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완성"



서구는 16일 서구청에서 직원 150명 명을 대상으로 '생활정부 선포식' 행사를 열고, 주민 자치 강화를 위한 6

대 핵심 과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구민과 함께 '생활정부 서구' 실현으로 착하고 기쁘

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문화, 착한 권력과 선한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활 정부 6대 핵심과제는 ▲주민이 그리는 마을 자치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복지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안전도시 ▲쉽·여가·음악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다.

특히 서구는 BI(Brand Identity)사업을 추진, 동마다 마을의 특색을 담은 상징물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소외됐던 주민들의 마을 사업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바로 문자 하랑께'를 활성화한다.

/권형안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